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임현주 작가



임현주, 'Happy day!'

사랑의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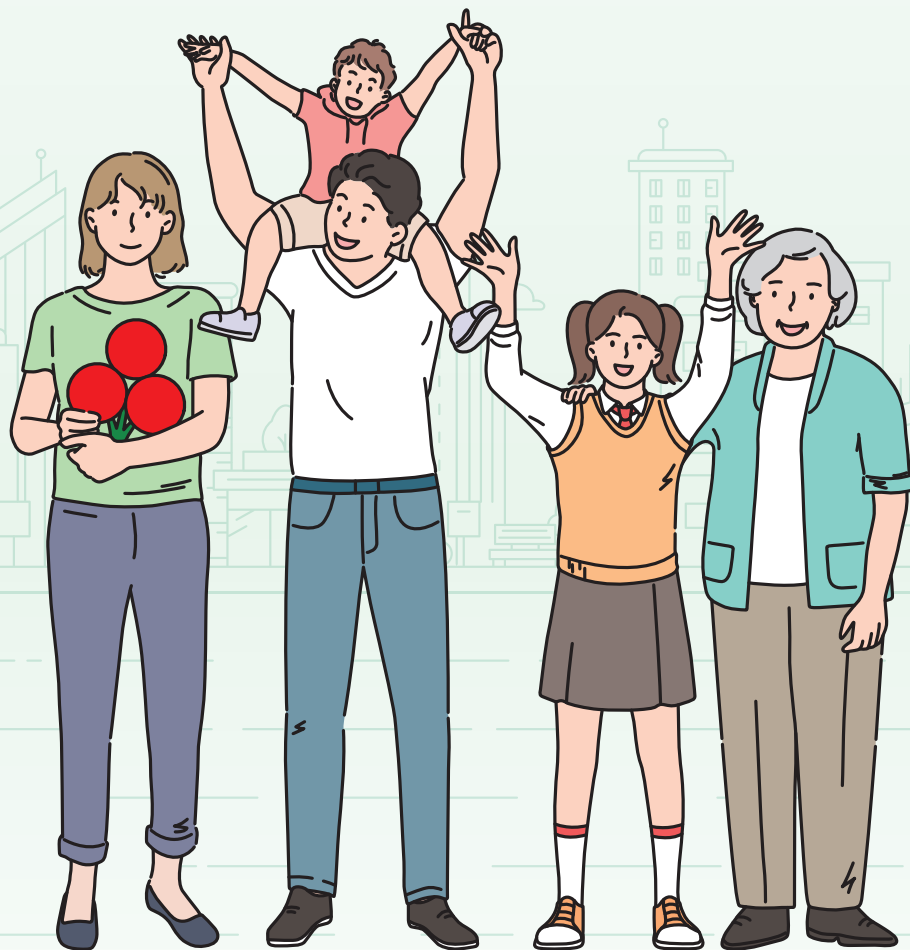
2023  
07



코로나19 이후 건강한 일상!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

# 일상회복 착! 착! 착! 나눔캠페인

2023. 06. 15. ~ 07. 31.



제로 웨이스트 나도 한번 해볼까?



7월호 <사랑의열매> '그린 열매'(14~15페이지 참고) 기사 읽으셨나요? 이번 달에는 화장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사랑의열매>가 매달 작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린 열매'에 소개한 소창 손수건을 독자 여러분도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제품을 사용한 후 생생한 체험기를 들려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

- ① 매월 20일까지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mailto:cckpr@chest.or.kr)로 제품 체험을 신청한다.
- ② 메일을 보낼 때 이름과 연락처, 받을 주소를 적는다. (총 3명 선정)
- ③ 제품을 사용한 후 간단한 후기를 메일, 전화 등 편한 방식으로 사랑의열매에 전달한다. (후기는 다음 달 '그린 열매 플러스'에 게재할 예정)





**04 표지 이야기**  
그림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임현주 작가

**06 나눔 여행**  
특별한 시원함을 선사하는  
이색 동굴 Top 5

**10 매슬랭**  
샐러드&디톡스 주스 전문점  
'착한식탁' 연지혜 대표

**14 그린 열매**  
손수건 일주일 체험기  
화장지와 헤어질 결심

**16 모두의 나눔**  
몸 튼튼 마음 튼튼  
함께 누리는 건강한 생활

**20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찾아가는 무료 순회 진료 사업'

**24 내 인생의 한마디**  
국민의힘 박성중 국회의원

**28 나눔캠페인**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출범

**30 착한가정**  
착한가정 5000호 탄생  
아나운서 김정근·이지애 부부

**32 나눔 소식**  
① 사랑의열매 '윤리경영·혁신성장' 선포  
② UWW 콘퍼런스

**34 열매 소식**  
지역 모금 전문가 탄생  
사랑의열매 모금아카데미

**36 나눔인**  
어르신 위한 목욕차·세탁차 기증한  
'효녀 가수' 현숙

**38 착한기업**  
국내 최대 수소 전문 기업 어프로티움(주)

**41 크라우드펀딩**  
부자·조손 가정 겨울방학 도시락 지원 사업

**42 다른 그림 찾기**

**43 전국 열매 이야기**  
서울·인천·경기·경기북부·강원·세종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8 전국 지회 뉴스**

**68 나눔 만화**

이달의 표지



○ 임현주, 'Happy Day!'  
53.0 × 40.9cm  
oil on canvas

## 사랑의열매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발행인** 김병준  
**발행일** 2023년 7월 / 통권 195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내 마음이 들리나요?”

소곤소곤, 보는 이에게 말을 건넌다. 슬프면 위로하고, 기쁘면 축하하며, 절망에 빠졌다면 큰 소리로 외치라고 북돋아준다. 임현주의 그림이다. 글강은진 사진김기남

## 세상 모든 이가 소중해

〈사랑의열매〉 7월호 표지는 임현주 작가의 'Happy Day'라는 작품이다. 다양한 꽃과 만족스러운 표정의 양, 그리고 나비까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참 예쁜 그림이다. 그런데 문득,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꽃과 양 중 어느 것이 먼저 보였는지 묻고 싶다. 혹은 둘 중 어느 것이 주인공일까? 표지를 다시 보고 와도 좋다. “작품 주인공은 양이지만 가까이 배경이 되어 꽃을 돋보이게 하고 있죠. 작은 들풀이라도 다칠까 조심조심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런 양을 위해 꽃들은 길을 막지 않고 환영해요.”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 기쁨도 주고요.” 임현주 작가는 “양과 꽃이 서로 배려하며 함께하는 세상은 보는 이들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말했다. 조용한 음성이지만 확신에 찬 말투였다. 작품의 첫인상은 그저 아름다웠지만, 다시 보니 더없이 따뜻하다. 무엇이 주인공인지, 배경인지 나누는 것은 무의미했다. 시선이 가는 모든 것이 작품의 주인공이었기 때문. 이것이 바로 임현주의 작품 세계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고 말하는 작가. 그의 그림 속에 위로가 있는 이유다.

## 화가 된 약사

임현주 작가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 여정과 닮은 구석이 있다. 초기작은 현재와 달리 꽤 어두운 색감이 많다. 작가가 투영된 양이 등장한다는 점만 같다. 어떤 작품은 황량한 들판에 작은 양 혼자 덩그러니 서 있다. 꼭 작가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나선 때 같다. “세 살 때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어른들의 권유로 약대에 진학했지만 아버지가 오래 투병하시다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약사가 된 후에도 어머니와 손위의 두 오빠마저 돌아가시면서 큰 시련을 겪었어요. 사람들은 제게 어려움을

극복했다 말하지만 그저 견뎠을 뿐이에요. 하루하루.” 임현주 작가는 당장의 아픔보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더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 어려운 이들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돼 주말이면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진료 봉사를 하고, 약국에서는 힘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꺼이 쉼터와 상담실 역할까지 감당해냈다. 또 대학원에 진학해 전인치유와 복지상담학 공부까지 하면서 자신의 삶과 이웃에 진심을 다했다. “의약 분업이 시행되면서... 약국을 운영하기 더 힘든 상황이 되었고, 또 그즈음 친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멀리 떠나고, 돌보던 조카들도 독립하면서 뭔가 모두 소진한 것 같았어요.” 임현주 작가는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던 순간, 오랜 꿈이던 그림이 떠올랐다고 한다. 내일 죽더라도 한번 그려보자는 마음이었고, 독학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될 해도 잘했을 사람’이 임현주다.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듬어오다 이제는 그림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 임현주의 작품은 어딘가 사랑의열매와 비슷한 면이 있다. 당신은 소중하다고 말하니까. 언제나. 🍀

### 작가 주요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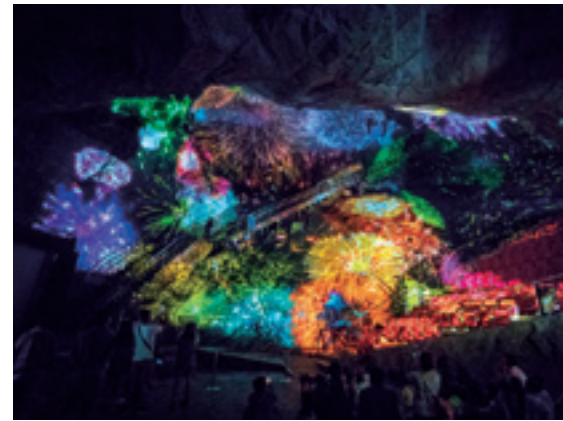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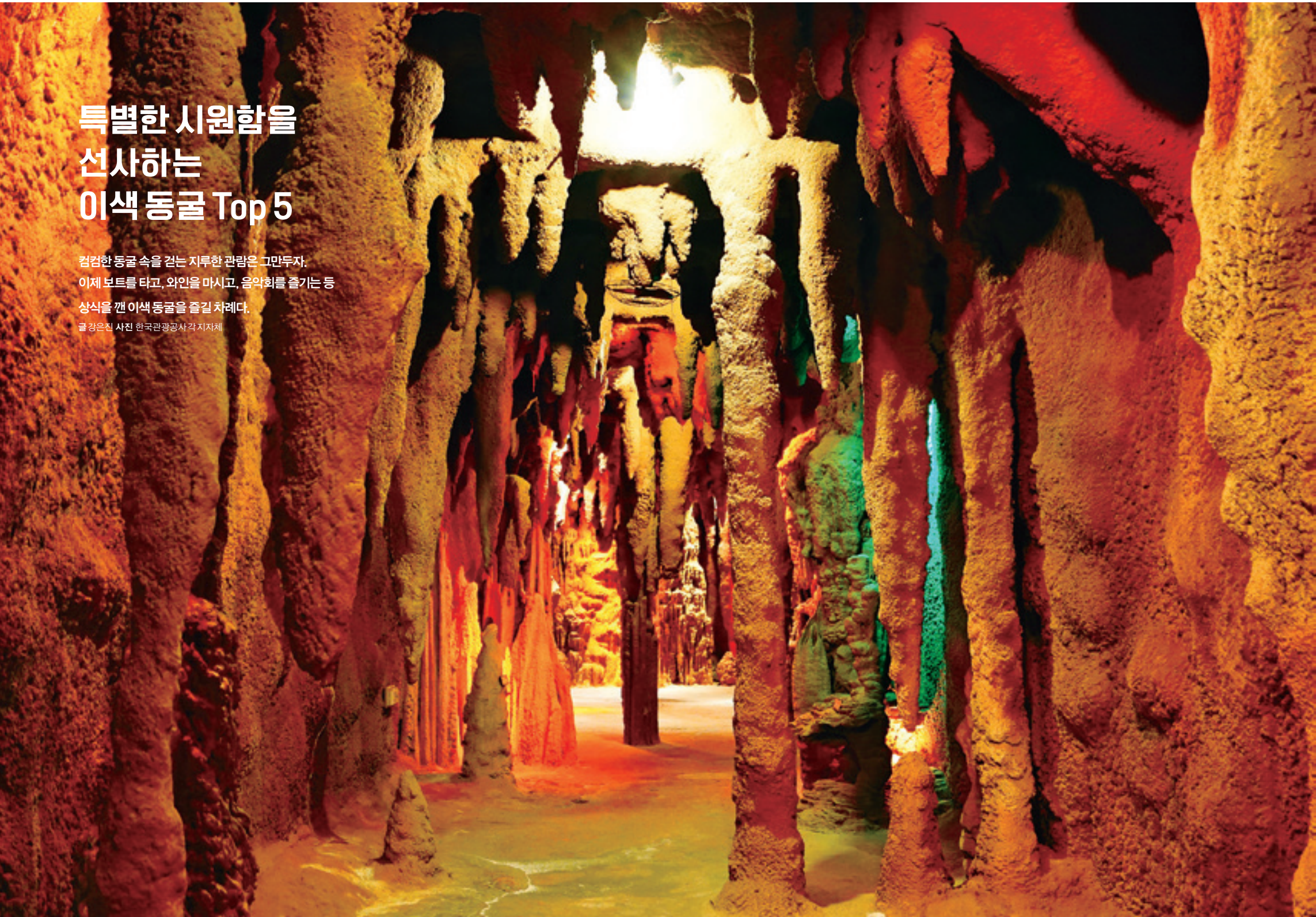
- 2008~2022 개인전 및 초대전 8회
- 2019~2022 모란꽃 사생작가 초대전(강동아트센터)
- 2019~2020 광주비엔날레 다무기전
- 2011 카자흐스탄 3인전(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 2004~2017 H&H Art View(삼성서울병원) 기획 등 100여 회
- 1983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2010 강남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복지선교학과 졸업





# 특별한 시원함을 선사하는 이색 동굴 Top 5

컴컴한 동굴 속을 걷는 지루한 관람은 그만두자. 이제 보트를 타고, 와인을 마시고, 음악회를 즐기는 등 상식을 깬 이색 동굴을 즐길 차례다.  
글 강은진 사진 한국관광공사각지자체



## 드라마틱한 포토 존 강원종합박물관 실내 동굴

SNS에서 주목받는 동굴 인증샷을 원한다면 강원종합박물관 실내 동굴로 향하자. 이곳의 정확한 명칭은 '동굴 및 증유석 전시실'로, 박물관에서 모형으로 동굴을 재현해놓은 전시실이다. 물론 실제보다 생동감은 떨어지지만,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해 포토 존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전시실 안은 석회동굴과 석회동굴의 2차 생성물인 증유석, 석순, 석주, 유석, 석화 등을 모형틀을 비롯해 실제 채집한 자료들을 함께 전시해 자연의 신비함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거대한 규모로 압도하는 야외 증유석 폭포도 볼만하다. 특히 세계 최대 크기의 매머드 상아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남 고성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탁본도 전시해놓아 아이들과 함께 둘러보기 좋다.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3016  
☎ 033-541-1523



**카약 타고 즐기는  
활옥동굴**

충주호 인근에 자리한 활옥동굴은 100여년 동안 활옥, 백옥, 활석 등을 채굴하던 광산이다. 1922년 일제강점기에 개발한 국내 유일의 활석 광산으로 기록상 57km, 비공식 87km에 이르며 지하수직고는 711m로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다. 특히 암반수가 고여 형성된 동굴 속 호수에서 투명 카약을 타는 체험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또 땅속에서 캐낸 광물을 지상으로 운반하던 거대한 권양기부터 광부들이 타고 다닌 수레까지 당시 광산의 흔적도 곳곳에 가득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동굴에는 고추냉이(와사비) 농장도 조성돼 있어 싱싱한 고추냉이도 구입할 수 있다. 동굴 밖 카페에서는 와사비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는데, 달콤함 뒤에 밀려오는 알싸한 맛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충북 충주시 목벌안길 26 ☎ 043-848-0503



**이색 동굴의 원조  
광명동굴**

폐광의 기적이라 일컫는 광명동굴은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다. 1921년 일제가 자원 수탈 목적으로 개발한 광산으로, 1972년 폐광 후 40여년간 새우젓 창고로 사용하다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하면서 관광 명소로 재탄생했다. LED 조명과 뉴미디어 기법을 이용한 아트 프로젝트 공간 원홀광장, 350석 규모를 갖춘 국내 유일의 동굴 예술의전당, 또 1급 암반수를 이용해 토종 물고기 외세계의 다양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동굴 속 아쿠아월드, 금·은·동 등을 채굴하던 광명동굴의 역사를 담은 황금길, 영화 <반지의 제왕>을 만든 뉴질랜드 웨타워크숍(Weta Workshop)이 제작한 국내 최대의 용과 골룸 등이 있는 판타지 웨타 갤러리까지 동굴 안은 볼거리·즐길거리가 넘친다.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 070-4277-8902

**이열치열 족욕 즐기는  
무주머루와인동굴**

더위를 피해 머루와인 한잔 즐길 수 있는 곳, 무주머루와인동굴이다. 무주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뚫은 작업용 터널이 무주 머루 농가와 머루와인업체의 훌륭한 저장고이자 홍보 공간으로 변신했다. 동굴은 국내 최대 머루 산지인 무주 머루에 대한 소개와 머루 즐기 및 열매를 색색의 조명으로 꾸민 포토 존, 그리고 그리스 신화 주인공이 와인을 따르는 재미난 트릭 아트와 화려한 빛 터널 등으로 아기자기하게 구성돼 있다. 특히 이곳의 백미는 와인 시음장과 와인 족욕장이다. 평균 13~14°C를 유지하는 동굴을 둘러보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는데, 그때 머루와인 한잔 마시면서 뜨끈한 족욕을 즐기면 한여름에 이만한 호사가 따로 없다. 입장권 2,000원으로 현재 시판하는 덕양양조의 '무주 구천동 머루와인(Meoru Wine)', 샤토무주의 '샤토무주(Chateau Muju)' 등 다섯 가지 머루와인과 사과와인을 맛볼 수 있다.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359 머루와인비밀의문 ☎ 063-322-4720



**와인에 대한 모든 것  
영동와인터널**

대한민국 최고의 와인 뮤지엄이라 할 만하다. 영동와인터널은 다른 지역 터널이나 동굴과 달리 개척식 터널 공법으로 시공한 시설로, 오직 와인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420m 길이의 터널 안은 와인의 역사와 문화, 쓰임새, 각 나라의 주요 와인 등 포도·와인과 관련한 10가지 테마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와인으로 연출한 세계적 명화와 한국 영화 속 명장면만 모아 보여주는 <영화속 와인>, 다양한 캐릭터가 함께하는 포토 존, 파노라마 영상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환상터널 등 즐길 거리도 다채롭다. 그중 백미는 와인 저장고다. 긴 저장실을 가득 채운 오크통이 뿜어내는 이국적 분위기는 마치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한 와이너리에 온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성인 관람객 1인당 세 가지 와인을 무료 시음할 수 있으니 와인에 관심 있다면 꼭 방문해보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30 ☎ 043-740-3636~7





샐러드&디톡스 주스 전문점  
‘착한식탁’ 연지혜 대표

##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책임집니다”

달콤 매콤하고 짭짤한 중독적인 맛이 ‘맛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시대다. 우리 식탁 역시 자극적인 맛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에 연지혜 대표는 건강한 음식으로 구성된 ‘착한식탁’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충북 청주시에 착한식탁을 열었다. 글 이선희 사진 서범세



### 건강함이 착한식탁의 정체성

아침 식사를 하기엔 늦고 점심 식사를 하기엔 이른 애매한 시간이었지만, 착한식탁을 찾는 이의 발길이 이어졌다. 손님들이 주문하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다. 한두 번 온 게 아닌 듯 다양한 샌드위치 중 하나를 집어 계산까지 일사천리로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손님은 주문도 하기 전에 연지혜 대표가 먼저 샐러드를 건넸다. 무엇을 주문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이들 모두 착한식탁을 오랜 시간 이용한 단골들이었다. 이후에도 단골손님의 방문은 계속됐다. 하지만 착한식탁이 처음부터 이렇듯 열렬한 사랑을 받은 건 아니었다. 2019년에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손님들의 반응은 의아함에 가까웠다.

“외관을 보면 카페 같은데, 상호는 반찬 가게 같으니까 지나가다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라고 물어본 분이 꽤 많았어요. 한마디로 걱정의 대상이었죠.(웃음) 당시엔 제가 디톡스 메뉴에만 집중한 터라 다른 메뉴는 거의 없었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메뉴를 보고 당황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후 외식업계에서 실력을 쌓던 연 대표는 ‘언젠가 내 가게를 열어야지’라는 막연한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건강상 이유로 식단 관리를 하면서 집 밖에서 몸에 이로운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다. 이 깨달음이 누구나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착한식탁’의 문을 연 계기가 되었다. 초반에는 맛있고 건강한 디톡스 메뉴의 맛을 알리는 데 집



중했으나 점차 샐러드, 샌드위치, 카페 음료, 베이커리류는 물론 비건 메뉴까지 선보이며 착한식탁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다.

### 자연재료 맛을 살리기 위한 노력

착한식탁에서 판매하는 샐러드 종류만 7종, 샌드위치 3종, 디톡스 주스 4종에 달한다. 여기에 베이글·스콘·쿠키 등 베이커리류, 과일청으로 만드는 에이드와 차 등 음료까지 메뉴 구성이 다채롭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메뉴를 연지혜 대표가 직접 만든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가공식품은 거의 쓰지 않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직접 만든다.

“뻔한 말이지만, 기본에 충실하며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 최대한 신선한 자연 재료를 쓰려고 하죠. 시판 제품을 쓰면 여러모로 편하지만, 그 안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 있는지 모르니까 사용하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음식을 만들 때도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재료만 넣으려고 해요.”

빵은 물론이고 샐러드에 들어가는 리코타 치즈도 직접 만들며, 그때 들어가는 레몬즙도 시판 제품이 아닌 직접 레몬을 짜서 넣을 정도다. 모든 걸 하나하나 직접 만들다 보니 꼭두새벽부터 시작하는 그의 하루는 늦은 밤이 되어야 겨우 끝난다. 기본을 지키며 정직하게 만드는 연 대표를 보고 지인들은 “대충 해! 누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쓴다고 그래”라며 만류하곤 한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티가 안 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손님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이제는 당연히 가게 안에 있는 건 모두 직접 만들었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착한식탁에는 단골손님도 많지만, 가족 단위 손님도 많다. 대부분 평일에 부모가 먼저 먹어본 후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다. 어린 자녀가 먹어도 안심할 수 있다는 부모의 판단이 선 것. 그래서 연 대표는 가족 단위 손님의 방문이 유독 반갑다고 한다. 굳건하게 지켜온 그의 정성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말이다.

1 착한식탁 내부 모습  
2 착한식탁에서는 샐러드 7종, 샌드위치 3종, 디톡스 주스 4종을 판매해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



3 문을 연 초기에는 카페로 오해하는 이가 많았을 정도로 아지각이한 외관  
4 연 대표가 직접 만든 베이커리류. 왼쪽 벽에 있는 메뉴판 그림 역시 그의 솜씨다.

### 차곡차곡 쌓인 모두의 마음

착한식탁은 지난 2021년 충북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연 대표는 예전부터 착한가게 프로그램을 알고 있던 티라 가게 운영이 안정되면 꼭 가입하겠노라고 다짐했었다. 마음속에만 머무르던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진 건 어느 손님의 예상치 못한 방문 때문이었다.

“컵 홀더랑 테이크아웃 때 사용하는 커피 캐리어를 모아서 오신 거예요. 깨끗하게 사용한 건데 한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깝다면서 주시더라고요. 다른 손님께 동의를 구해 모두 재사용했구요. 이렇게 아낀 비용은 제 몫이 아니기에 바로 착한가게에 가입하며 기부했죠.”

선한 영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깨끗이 사용한 커피 캐리어를 다시 가져오는 사람이 하나 둘 늘었고, 컵 홀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심심찮게 나타났다. 또한 재사용에 대한 거부감 없이 오히려 반기는 이들까지. 덕분에 모두의 마음이 더해진 기부금을 매달 전달할 수 있었다.

연지혜 대표는 인터뷰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거듭 강조했다. ‘걱정의 대상’이던 착한식탁이 이렇게 건강한 맛집으로 사랑받기까지 누구보다 큰 도움을 준 이들이기도 했다. 게다가 나눔의 시작을 함께하며 매달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으니 그의 감사 인사가 어쩐지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건강한 음식을 정직하게 만드는 가게,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드는 나눔까지. ‘착한 맛집’이라는 수식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착한식탁이다. 🍓



# 손수건 일주일 체험기

## 화장지와 헤어질 결심

화장지는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이다. 하지만 쓰임을 다하면 고스란히 버려져 쓰면 쓸수록 쓰레기가 늘어나는 셈이다. 그래서 결심했다. 화장지는 최소한으로 사용하되 대체품인 손수건을 가까이해보기로 말이다.

클이선희 참고 자료 녹색연합



### 30년생 나무로 만드는 화장지

식당에서 수저를 놓거나 손 씻고 물기를 닦을 때, 오염 물질을 닦아낼 때 등 우리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은 화장지를 사용한다. 쓰임이 다양한 만큼 시중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화장지가 있

다. 저마다 길이, 폭, 브랜드는 달라도 공통점이 있다. 바로 천연 펄프로 만든다는 점이다. 천연 펄프 1톤을 생산하는 데 30년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다. 우리가 화장지를 편하게 쓰고 버릴수록 고목 수백, 수천 그루가 베인다. 나무가 사라

지면 숲이 사라지고, 그로 인한 악영향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또한 쓰임을 다한 화장지는 쓰레기가 되어 오랜 시간 썩지 않고 토양을 오염시킨다.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

### 기자의 생생 체험기

**내게 너무 많은 손수건** 체험에 앞서 손수건을 사는 대신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기로 다짐했다. 생각보다 많은 개수에 당혹감이 밀려왔다. 도톰한 면 손수건, 부드러운 가제 손수건, 손의 물기를 닦을 때 사용하기 좋은 핸드 타월까지. 몇 장은 사무실 책상 위에, 몇 장은 가방에 넣었다.



내가 생각보다 많은 손수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

**아직은 낯설고 불편** 무의식적으로 자주 화장지에 손이 간다. 음식을 먹은 후 화장지를 뽑았다가 아차 하며 내려놓았다. 입가를 닦은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자니 찜찜했다. 책상에 흘린 커피를 손수건으로 닦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다.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 손으로 비벼 빨아보았지만, 희미한 흔적이 남았다. 젖은 수건을 집으로 들고 가는 일도, 세탁하는 일도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흡수력과 통기성이 우수한 소창 손수건

**새로운 아이템 장착** 결국 소창 손수건과 소창 와이프스를 구입했다. 구입 후 풀기를 제거하는 과정이 번거로웠지만, 손에 묻은 물기를 잘 흡수해주고, 펼쳐두면 금세 말라서 만족스러웠다. 특히 소창 와이프스는 한 장씩 뽑아 쓸 수 있어 여행용 화장지 대응으로 적합했다. 다만 세탁 후 아무리 잘 말려도 주름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여행용 티슈처럼 한 장씩 뽑아 쓸 수 있는 소창 와이프스

**체험해보니**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손수건을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니 제법 사용할 만하다 느꼈다. 하지만 사용한 손수건을 세탁하는 일은 여전히 힘들고 하기 싫었다. 손수건을 사용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화장지를 소비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체험을 마친 후에도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손수건을 두었다.



몸 튼튼 마음 튼튼

# 함께 누리는 건강한 생활

자신을 돌보며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취약 계층 이웃은 더욱 그렇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 미세스온그림



## 저소득 어르신 구강보건 지원 사업



재능 기부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진과 치과 진료를 받는 어르신

▶ 국민건강보험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개수가 제한적이다. 또한 비보험 치료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 이에 사단법인 해피실버는 (주)동서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올해 8년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치과 진료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매년 어르신 40명에게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어르신 350명이 진료를 받아 한층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다.

### MINI INTERVIEW



사단법인 해피실버 최수호 대표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구강 기능을 회복해 어르신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근감소증과 골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노화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정을 통해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됩니다.

◎ (주)동서와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구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의 후원과 의료 종사자의 재능 기부가 더해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 캄보디아 소아과 신생아보건 서비스 역량강화 사업

▶ 캄보디아 지방의 도립병원 소아과 의료진 대부분은 임상 수련을 받지 않은 상태로 배치된다. 보수 교육 기회도 거의 없어 보건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 인력 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는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3년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소아과 의료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립병원 소아과 의료진에게 기본과정과 신생아집중과정 총 6개월간 훈련 교육을, 도 보건국 산하 보건소 의료진에게 통합아동질병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이 진료로 연계되도록 해 해당 지역 산모와 아기가 한층 질 높은 진료를 받게 됐다. 또한 도립병원 신생아 집중관리실의 장비 현황을 조사해 필수 의료 장비를 지원하며 신생아 관리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1 통합아동질병관리(IMCI) 전파 교육 모습 2 지원받은 신생아 관리 필수 장비 3 통합아동질병관리(IMCI) 교육 중 실습하고 있는 의료진



1



2



3

### MINI INTERVIEW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사무소운영단 김태훈 전문위원

Q 사업 진행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요? 신생아는 모든 면에서 더 연약하기 때문에 대하는 의료 인력이 조금만 함 초점을 잘못 해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처치 과정이 더욱 섬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에 이어 여러 지역의 인력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식의 확대 및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성 강화 측면도 고려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Q 기존 해외 의료 지원 사업과 차별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시행한 1~2주의 단기 교육 대비 6개월간 장기 교육 훈련이 이루어진 점,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 훈련과 현장 코칭을 진행한 점도 차별화를 이룬 부분입니다.



1 청소년 정신 건강의 인식 변화를 위해 홍보에 나선 참여자들 2 피어 스페셜리스트가 주도하는 사회적 처방 커뮤니티

## 자살 생존자 청소년대상, 조기개입 및 사회적연결망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 사회적처방 활동가육성사업



2

▶ 멘탈헬스코리아는 2021년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돼 청소년의 정신 건강 조기 예방과 조기 개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신 건강 교육, 병원 밖 정신 건강 커뮤니티(사회적 처방), 컨슈머 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년간 자살 및 자해 생존자, 가정 폭력 피해, 우울증 등을 경험한 청소년을 회복의 롤모델이자 아픔을 경험한 전문가인 피어 스페셜리스트(peer specialist, 동료 지원가)로 육성했다. 이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질환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 관련 정보나 대처 방법, 상담이나 대화 등을 제공한다. 앞으로 피어 스페셜리스트들의 주도로 사회적 처방 커뮤니티를 형성해 사회적 지지망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조기 개입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 MINI INTERVIEW

#### 멘탈헬스코리아 장은하 부대표

Q 학교·학교 밖 정신 건강 교육 사업부터 대한민국 최대 정신 건강 서포트 커뮤니티 구축까지 사업 범위가 넓은데요, 다양한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청소년 정신 건강의 핵심은 과잉 의료화 된 접근보다 청소년의 필요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정신 건강은 위험한 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메시지, 그리고 힘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교육과 커뮤니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Q 나눔과꿈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눔과꿈 사업을 통해 정신과적 증상과 아픔은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며 직접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로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찾아가는 무료 순회 진료 사업'

## 의료 사각지대 해소하는 희망의 진료소를 아시나요?

그야말로 산 넘고 바다 건너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사람들,  
통영적십자병원 무료 순회 진료 의료팀이다. 글강은진사진통영적십자병원

### 멀고 먼 병원

우리나라는 대표적 의료 선진국 중 하나다. 우수한 의료진과 수준 높은 의료 기술, 거기에 국민건강보험제도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의료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병원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사람이 많다. 바로 도서 벽지에 사는 주민들이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 지역의 대부분은 병원은커녕

보건소나 약국조차 없는 형편이다. 아파서 병원이라도 갈라치면 배를 타고 육지까지 나가야 하는데, 당일에 오가는 것이 여의치 않은 곳이 많다 보니 선뜻 나서질 못한다. 만성질환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 언감생심이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다. 거기에 경제적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형편이라면 건강한 삶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의료 취약 지역에 사는 거의 모든 주민이 처한 현실이다.

무료 순회  
진료소에서 건강  
상담 중인 의료  
취약 지역 주민



진료팀은 외과 의사 1명,  
내과 의사 1명, 간호사  
및 행정 요원, 적십자  
봉사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통영적십자병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통영시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직접 찾아가 7년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 고려아연과 사랑의열매가 함께 지원하는 '찾아가는 무료 순회 진료 사업'이다. 건강 증진, 질병 치료, 질병 예방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공공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시작했다.

### 순회진료,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만성 퇴행성 질환 유병률 증가,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건강관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지 오래다. 특히 통영시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6%로, 타 지역에 비해 저소득 계층이나 홀몸 어르신 등 요보호 계층 구성 비율이 높고, 농어촌 등 도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의료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통영시는 유인도 43개, 무인도 527개로 전국에서 신안군

진찰과 상담은 물론  
파스, 경구용 및 외용  
약 처방, 영양제 및  
주사액 처방 등 순회  
진료는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순회 진료팀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주민들은 이른 시간부터 진료소 앞에 모여 의료팀을 기다린다.

이상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사회 건강 안전망 차원에서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영적십자병원은 통영시와 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 및 지역을 선정해 15개 읍·면·동은 연중 상시 평일 최소 1회, 한산도·육지도·사랑도 등 섬 지역은 연중 2회로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외과 의사 1명, 내과 의사 1명, 간호사 및 행정 요원, 적십자봉사원 등 20여 명으로 의료팀을 구성해 진료 상담, 처방, 투약, 건강 강좌 등을 무료로 진행한다.

### 의료 취약지역주민들 만족도 높아

섬 이외 지역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섬 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거주 주민 전체를 진료함으로써 크게 환영받았다. 또 2,000명의 사업 계획 인원 중 1,955명이 실제 참여하며 목표 실인원 지원율 80%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무료 순회 진료 후 질병 유소견자 36명을 통영적십자병원 내 의료 소외 계층 의료비를

다음으로 섬이 많다. 순회 진료가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대한적십자사는 2022년 6월 경남·통영권 지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선정된 통영적십자병원과 연계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서 지역 및 소외 지역만 60세

무료 순회 진료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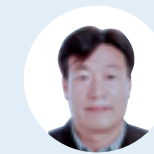


지원하는 희망진료센터로 연계해 추가 정밀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확대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경험한 질병 유소견자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만족도는 95.5%에 달한다. 통영적십자병원은 도서 지역의 이동 거리 제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타 지역에 비해 요보호 계층과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현실 등으로 '찾아가는 무료 순회 진료 사업'은 지역 거점

공공 병원인 통영적십자병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아직도 무료 순회 진료팀의 방문을 기다리는 의료 취약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도 통영적십자 무료 순회 진료팀은 진료소가 문을 열기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주민들을 생각하며 의료 장비와 용품을 한가득 챙겨 배에 오른다. 의료 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넌다. 🍀

### SPECIAL INTERVIEW

## “아직도 순회 진료 기다리는 의료 취약 지역 많아”



통영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  
공공의료사업팀 서석보 팀장

**무료 순회 진료소를 찾는 어르신들의 상태가 궁금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중이 높아 평균 기대 수명이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또 대부분 저소득 및 어르신 단독 세대인 요보호 계층이라 의료 서비스는 물론, 지속적 관심까지 필요로 하고 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찾아가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다.**  
맞다. 말 그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즉각적인 검사를 해드리거나 반드시 필요한 의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게 가장 안타깝다.

### 그럼에도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

진료소가 문을 열기도 전부터 미리 대기하시면서 “여기까지 찾아와주어 고맙다”며 손잡고 인사를 건네실 때다. 그뿐 아니라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직접 그린신 고무마나 감자를 싸주시거나, 영양제 한 대에 금세 기력을 찾으시는 모습을 볼 때도 큰 보람을 느낀다.

### 고려아연과 사랑의열매 지원 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당연히 더 많은 지역의 어르신이 무료 순회 진료 혜택을 받고 의료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찾아가지 못한 의료 취약 지역이 많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무료 순회 진료를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통영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에서 의료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 순회 진료 서비스를 받으신 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이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 병원에 100만 원을 기부해 언론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 🍀



아너 2936호 국민의힘 박성중 국회의원

# “세상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 기부에서 시작합니다”

박성중 의원은 나눔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아너 등재 역시 2009년부터 시작한 기부 누적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며 추대된 것이다. 박성중 의원의 아너 가입은 사랑의열매와 함께한 지난 10여 년의 나눔을 결산하는 이정표가 됐다.

글 강보라 사진 서범세

사랑의열매 4대 사무총장 출신인 박성중 의원이 2936호 아너가 되었다. 매일 먹는 집밥 처럼 일상의 작은 나눔을 강조하는 박 의원은 ‘1%의 나눔으로 100%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이 꾸준한 나눔에서 나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했기 때문이다.

**나눔 씨앗으로 수확하는 사랑의열매**  
박성중 의원과 사랑의열매의 인연은 서초구청장 시절인 200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구청

장이던 박 의원은 노인복지관과 전문 요양원 건립을 잇달아 추진하며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한 공로로 효령상(효 부문)을 수상했고, 1,000만 원의 상금을 기부하며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사랑의열매 4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2011년에는 직장인 정기 기부 프로그램으로 매월 1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사무총장 퇴임 이후에도 저서 <나눔 디자인> 출판기념회 수익금 전액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2016년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20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매월 세비 100만 원을 정기 기부로 약정해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자신만의 나눔 철학을 실천 중인 박 의원은 나눔이라는 씨앗으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수확하고 싶다는 바람을 지니고 있다.

“나눔은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는 일입니다. 희망은 꿈이라는 싹을 틔우고, 열정과 노력 속에서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어 또 다른 나눔을 낳는다는 신념으로 인생을 채우며 살았죠. 앞으로도 힘닿는 날까지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나가고 싶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시절 '기부 정보 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기부 편의성과 기관의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박성중 의원은 사랑의열매의 다양한 플랫폼이 크고 작은 실패를 보듬으며 성공으로 나가는 밑거름이 된다고 확신한다.

정부 운영 아동 자산 형성 사업인 ‘디딤씨앗통장’으로 10명의 아동을 후원하는 것도 취약 계층 아동의 자립을 응원하는 마음이었다.

“성공이라는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에디슨도 999번 실패 끝에 세상을 밝히는 전기를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실패에서 끝나면 제로가 되지만, 실패가 쌓이고 쌓이면 성공으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죠. 저는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우리 모두의 기부에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 무명의 사람들에게 배우는 특별한 기부 철학

박성중 의원이 배분 기관에 몸담으며 깨달은





진리는 '작은 기부가 큰 기부'라는 것이다. 나눔 롤모델로 장삼이사(張三李四)의 평범한 국민을 꼽는 것도 그 때문이다.

“1,000명이 1만 원씩 모아서 1,000만 원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밥 열 숟가락으로 한 그릇을 만드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실현인 것이죠. 평범한 집밥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듯, 일상의 작은 기부가 모이면 이웃들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에게 기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람 역시 명망가나 유명인이 아니라 또래의 일본인 친구였다. “서울시 공무원 재직 시절 2000년부터 3년간 도쿄 사무소장을 겸해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당시 일본 생협(생활협동조합) 부장과 친하게 지내며 그 친구가 매달 5,000엔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시다.”

일본인 친구의 기부는 그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귀국한 즉시 정기 기부를 신청하며 나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출발은 나라의 녹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의무감이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누면 행복하다는 말은 경험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뿌듯한 감정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

“일상의 나눔을 모으면 십시일반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도 마음속 가득 행복을 느낄 수 있기에 지금까지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웃음)

나눔은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바른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살 만한 곳으로 바뀔 것이다.

### 만인은 봉사 앞에 평등하다

박성중 의원은 정기 기부 외에 대면 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배식 봉사부터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장판 교체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한다. 빠듯한 일정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유가 있어서 한다기보다 마음이 가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정기 기부를 하듯 봉사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비워야 가능한 일이지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대면 봉사를 나가면 그에게 배당되는 몫이 가장 허드렛일이라는 것이다.

“도배 봉사를 나가도 쓰레기를 치우고 짐 날라야 하죠. 기술이 없으니 별수 없습니다.(웃음)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분들 말씀을 열심히 따라야 좋은 결과물이 나올 테니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처럼 ‘만인은 봉사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말이다. 실제 봉사 현장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국회의원이라도 쓰레기 치우기, 교통정리 등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해내야 한다. 1만 명이 참여하면 곁에 있는 1만 명의 사람까지 행복해지는 것이 봉사의 매력이자 힘이기도 하다.

박성중 의원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나눔과 봉사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 사랑을 나누고 혜택을 더하는 기부 보장 제도

‘나눔의 아이디어뱅크’는 박성중 의원을 수식하는 또 다른 말이다. 실천에서는 우직한 모습이지만, 제도로 접근할 때는 누구보다 유연하고 툭툭 튀는 아이디어를 자랑한다. 사랑의열매 4대 사무총장 선임 당시 도입한 ‘기부 정보 확인 서비스’도 그중 하나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의 상세 지원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 편의성과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며 개인 기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기부 제도를 바라본다. 이름하여 ‘제2의 기부 보장 제도’이다.

“현재는 기부 후속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억 원을 기부하든 100억 원을 기부하든 기부로 끝나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기부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 이후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기부자에게 혜택의 우선권을 주는 보완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액 기부나 자원봉사 1만 시간 이상을 달성한 기부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기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런 내용을 사랑의열매를 넘어 사회 전체 시스템에서 공유한다면 기부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는 셈이다. 박성중 의원은 이와 더불어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국가 주요 행사나 문화·체육 시설 이용 등의 혜택으로 기부에 대한 자긍심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대하듯 기부자를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때 기부 문화가 변화할 것입니다.”

박성중 의원은 가진 것을 나누고, 작은 몫의 봉사를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리라 믿는다. 함께하는 이웃들이 있기에 검소한 어둠도 두렵지 않다. 그날을 앞당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새벽같이 길을 나선다. ❀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출범식

# “폭염과 엔데믹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지원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다시 건강한 일상을 선물하는 방법,  
바로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이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주요 내빈이 함께한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출범식 현장. 사랑의열매는 올해부터 매년 연중 나눔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47일간의 연중나눔캠페인

지난 6월 15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출범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 배우 겸 아나운서이여티 최원 박재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이자 방송인 전제향의 사회로 진행됐다. 또 이번 캠페인 1호 법인 기부자 신원의료재단 홍순범 행정원장과 개인 기부자 아나운서 김정근·이지애 부부가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 등 기후 위기와 사회 재난 취약 계층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엔데믹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이름은 사랑의열매 정기 기부 프로그램 '착한가정·착한가게·착한일터'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들의 일상이 착착착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7일간 일제히 전개된다.

## 캠페인, 정기기부 프로그램으로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의 포문을 활짝 연 출범식에서는 뜻깊은 기부자도 탄생했다. 먼저 앞서 소개한 신원의료재단은 출범식에서 캠페인 성공을 기원하며 1억 원을 기부해 캠페인 1호 법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0년 코로나19 특별 모금 참여를 시작으로 사랑의열매를 통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신원의료재단은 지난 1월에도 '희망 2023나눔캠페인'에서 1억 원을 기부하며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아나운서 김정근·이지애 부부 역시 캠페인을 통해 기부에 동참하며 착한가정 5000호 탄생의 주인공이 됐다. 김정근·이지애 부부는 대표적인 방송계 선행 부부로 다양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다.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은 캠페인의 대대적인 시작을 알리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민간 협력으로 정부 지원



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안전, 회복, 돌봄’ 분야에 지원할 예정이다. 🌸

###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참여방법

- ARS 전화기부(060-702-1004/ 건당 5,000원)
- 문자기부(#9004/ 건당 2,000원)
-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신용카드, 네이버페이 및 카카오페이)
- 온라인 플랫폼(카카오 같이가치,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 착한가정, 착한가게, 착한일터 정기 기부 프로그램 가입 (문의 나눔콜센터 080-890-1212)

1 출범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2 나눔캠페인 1호 법인 기부자로 힘을 보탠 신원의료재단



착한가정 5000호 탄생, 아나운서 김정근·이지애 부부

## “나눔의 행복한 사명을 느껴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대물림이라고 말하는 아나운서 김정근·이지애 부부, 착한가정 5000호의 주인공이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나눔을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들어보아요!”

-이지애 아나운서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건 나눔뿐인 것 같습니다.”

-김정근 아나운서

### 다시나눔을 일깨운 착한가정

가족 모두가 나눔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사랑의열매 가족 단위 정기 기부 프로그램 착한가정 5000호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바로 방송계 대표 선형 부부 아나운서 김정근·이지애 부부다. 지난 6월 15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출범식 행사에 개인 기부자로 참석한 부부를 만났다. 이날 두 사람은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으로 부터 가족사진을 새긴 착한가정 5000호 인증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이렇게 뜻깊은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착한가정 5000호로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행사장에 오는데, 왠지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더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것 같다고 할까요.”

김정근 아나운서는 착한가정 5000호가 되어 정말 고마운 마음이라고 거듭 인사를 했다. 그 뿐 아니라 행사 전 나눔문화센터 2층 명예의 전당에서 잠시 대기하던 부부는 벽면에 빼곡히 새겨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의 명단을 보며 자신들도 이름을 올리고 싶다는 순수한 욕심도 생겼다고 밝게 웃었다. 이지애 아나운서는 연애 시절부터 한 약속이 다시 떠올랐다고 했다.

“좋은 일 많이 하며 살자고 남편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데 바빠 그동안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착한가정 5000호가 그때 마음을 다시 기억나게 했어요.”

### 나눔이라는 사명

김정근·이지애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사내 봉사 활동을 함께 다니며 나눔에 대한 생각을 많이 나누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다양한 비영리단체에 기부와 봉사로 그런 마음을 실천에 옮

겨왔다. 부부는 큰딸 서아 양 돌잔치를 대신해 소아암과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많이 해왔다.

“제가 MBC에 소속되어 있을 때 사랑의열매에서 하는 연말 특별 모금 생방송부터 재난 재해 긴급 생방송까지 나눔 관련 방송을 여러 번 진행했어요. 그때마다 늘 나눔에 대한 사명감을 다지곤 했어요.”

김정근 아나운서는 방송 진행자로 달던 사랑의열매 빨간 배지를 기부자로 달게 돼 보다 나누는 삶을 다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지애 아나운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나누는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대물림이라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나눔의 조건도 잊지 않았다.

“나눔을 너무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면 쉽게 못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양치하고, 동전을 꺼내 음료수를 사 마시듯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눔을 사명이라고 기꺼이 말하는 사람들, 이웃사랑에 누구보다 진심인 아나운서 김정근·이지애 부부다. ❀



일상회복 책!책!책! 나눔캠페인에서 착한가정 5000호 탄생을 기념하는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이지애·김정근 부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부터)



사랑의열매  
'윤리경영·  
혁신성장' 선포

#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

지난 6월 8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윤리경영·혁신성장 선포식이 열렸다. 사랑의열매가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아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이 될 것을 약속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윤리경영·혁신성장 선포식에 참석한 사랑의열매 김수미 노사협의회 공동의장, 박영숙 배분분과실행위원, 황인식 사무총장, 김병준 회장, 김형철 이사,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 인천 사랑의열매 박용훈 사무처장

— 사랑의열매는 선포식에서 2023년을 윤리경영 실천 원년으로 선언하며 윤리경영 운영 체계를 공표했다. ●참여와 권한의 분산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 ●투명성과 공개성 ●신뢰와 협력의 운영 원리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윤리경영 기반을 구축한다. 2024년에는 윤리경영 내재화 및 모범 사례 발굴, 모니터링 체계 확립, 상시 감사 제도 활성화 등으로 안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빅데

이터 기반의 디지털 감사 및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사랑의열매 지원 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까지 윤리경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추진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아 민간 복지를 선도하는 사회적 자산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나눔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 것. ●생활 속 기부 문화 확산 ●사회 이슈 제시 및 컨설팅 기능 강화 ●복

지 사각지대 해소 및 배분 사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미래 도약을 위한 혁신적 조직 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의 15대 혁신 과제를 도출해 세부 실천 과제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선포식에서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나눔문화가 정착·확산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UWW  
컨퍼런스

# “사랑의열매 성공 사례, 전 세계 모금회에 영감 부여”

지난 5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세계공동모금회, 이하 UWW) 컨퍼런스에 사랑의열매가 참석했다. 전 세계 네트워크와 활발히 교류하는 한편, 사랑의열매의 우수 모금 사례를 주목하는 등 달라진 위상을 실감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1 15개국 300여 개 UW 지회 약 1,000명이 참석한 UWW 컨퍼런스 2 UWW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UWW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가운데)과 황인식 사무총장(왼쪽에서 두 번째), 사랑의열매 직원들

— 이번 컨퍼런스는 15개국 300여 개 UW(유나이티드 웨이) 지회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7일부터 19일 까지 2박 3일간 진행됐다. 전 세계 지회가 화합을 주제로 모여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사랑의열매도 황인식 사무총장이 직접 컨퍼런스에 참석해 UWW 안젤라 윌리엄스 회장을 비롯해 UWW 국제협력팀, 미국 로컬 지회 등과 모금 전략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섰다. 19일에는 황인식 사무총장이 직접 컨퍼런스 강연자로 연단에 올라 UWW와의 역사, 창립 25주

년 등 사랑의열매 역사를 소개하는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만의 차별화된 성공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청중은 UWW의 토크빌 소사이어티를 현지화해 탄생한 아너 소사이어티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조직의 핵심 가치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많은 시사점과 영감을 부여했다는 평을 받으며 세계 무대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황인식 사무총장의 강연을 청취한 가나, 멕시코, 인디애나 지회에서 협업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관계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UWW 글로벌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 해외 네트워크와 정보를 교환하며 우수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



컨퍼런스 강연자로 연단에 오른 황인식 사무총장



2





첫 번째 교육이 끝난 후 강원 모금아카데미 수강생들과 특강 연사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지역 모금 전문가 탄생

# 사랑의열매 모금아카데미

사랑의열매는 지역의 사회복지·비영리 파트너를 대상으로 모금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천안, 대전, 제주, 전주에 이어 올해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모금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 사랑의열매만의 특화된 모금 교육

사랑의열매 모금아카데미는 지역 사회복지 파트너 및 비영리 파트너의 모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문 모금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매개로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민간 복지 분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2019년 천안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대전, 2021년 제주, 2022년 전북 전주에서 개최해 매년 평균 1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모금아카데미 교육 후에는 연도별 기수 동문 모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역 상황에 맞는 모금 활동과 성과 및 고충 등을 나누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진행하는 등 자조모임이 이어져 비영리 생태계 발전에 또 다른 밑거름이 되고 있다.



“사랑의열매 모금아카데미는 지역에 기반한 이론, 워크숍, 실습을 통합한 최초의 모금 교육 전문 과정입니다. 특히 교육과정에 포함된 실습을 통해 실제 모금 성과를 창출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사랑의열매 모금아카데미 모금 교육을 진행한 휴먼트리 이선희 대표

## 이론부터 실무까지 탄탄하게

올해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5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8회 차에 걸쳐 '강원 모금아카데미'가 진행된다.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 19개 기관의 중간 관리자 또는 부서장급 24명이 교육에 참여 중이다. 특히 사랑의열매 모금 교육은 지역사회 모금 환경과 소속 기관 특성에 맞는 모금 전략 수립, 실제 모금 실행을 통한 실무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강원 모금아카데미에서도 모금 이론, 모금 기획 및 콘텐츠 개발 워크숍, 특강을 통해 모금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기획한 모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팀 단위 실습이 이루어진다. 강원 모금아카데미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모금 전문가들이 비영리 기관의 자립과 성장에 일조하는 한편,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랑의열매는 모금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모금 전문가를 배출하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비영리 조직의 모금 전략과 창의성'이란 주제로 특강 중인 사랑의열매 중앙회 이성도 기획조정본부장



4회 차 수업에 참여 중인 수강생들

“강원 모금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실무 역량을 강화해 기관 내 모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모금 기획 등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으로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사회복지 기관 담당자들이 모금 전문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강원 모금아카데미 수강생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심영에 부장





가정의 달 5월, 어르신 위한  
목욕차·세탁차 2대 기증한  
'효녀 가수' 현숙

## “이웃과 나누며 가장 행복한 건 바로 저예요!”

어르신을 위한 목욕차는 물론 세탁차까지  
기부하며 통 큰 나눔을 이어가는 가수  
현숙! 언제나 훈훈한 소식만을 전하는 국민  
효녀의 따뜻한 행보다.

글 강은진 사진 경기사랑의열매

### 목욕차에 이어 세탁차까지 기증

진정한 '국민 효녀 가수' 현숙이 또다시 통 큰 나눔을 실천해 화제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 목욕 차량과 세탁 차량 2대를 기증한 것이다. 5월 19일, 현숙은 고향 전북 김제군에서 어르신 1,000여 명을 초대해 '어울림 한마당 잔치' 무료 공연을 열고, 이동 세탁 차량을 전달했다. 그동안 목욕 차량을 기부해오던 그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큰 빨래를 헹겨워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드림 세탁기 2대와 건조기까지 갖춘 8,000만 원대 세탁 차량을 준비했다.



1 예천군청에서  
진행한 이동 목욕  
차량 전달식  
2 고향 김제군에  
첫 이동 세탁 차량을  
기증한 가수 현숙.  
사진은 전달식 모습

평소 기부해오던 5,000만 원대 목욕 차량보다 훨씬 고가다. 현숙은 “빨래하실 때 어르신들이 손이 아프고,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말을 듣고 내내 마음에 걸렸다”면서, 세탁 차량을 기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전북 도내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단 한 대로 순회 운영하던 세탁차가 2대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뿐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동 목욕 차량 나눔까지 이어갔다. 지난 5월 29일, 가수 현숙은 경북 예천군 풍양면 출신 기업가 (주)제이스텍 정재송 대표와 함께 이동 목욕 차량을 예천군에 기증한 것이다. 아울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깜짝 노래 선물을 하고, 목욕 봉사까지 펼쳐 주위를 감동시켰다는 후문이다.

### 할 수 있어 감사할 뿐

현숙은 2004년부터 김제군을 시작으로 경북 울릉, 경남 하동, 충남 청양, 강원 정선 등 전국 방방곡곡에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

고 매년 목욕차를 기증해왔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7년, 중풍인 어머니를 14년간 보살피며 몸소 겪은 어려움에서 시작한 목욕차 기부와 목욕 봉사는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제가 직접 우리 부모님을 씻겨드렸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목욕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드리면 어르신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서... 오늘도 열심히 노래해요!”

현숙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부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올해 5월에는 연말 행사비까지 미리 당겨 목욕차와 세탁차 2대를 준비했다. 그럼에도 목욕차라는 좋은 목표 덕에 자신이 활동할 수 있어 고맙다고 말하는 그녀 앞에서 마음이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노래를 하는 한 계속 기부와 봉사를 이어가겠다는 현숙은 신곡 '지평선 새만금'과 '사랑은 달달하게'를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어르신뿐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며 즐거움을 안겨주는 가수 현숙, 그의 무대가 영원하길 바라본다. ❀





국내 최대 수소 전문 기업  
어프로티움(주)

## 청정에너지로 이웃의 밝은 내일을 응원하다

어프로티움(Approtium)은 지역 가스  
사업으로 출발해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수소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행복·책임·도전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글강보라 사진 어프로티움(주)



울산 사랑의열매에 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어프로티움(주) 관계자 모습

- 1 어프로티움 임직원들이 울산 남구 선암동 온동네봉사단과 함께 상개저수지 환경 정비에 나선 모습
- 2 '나를 찾아 떠나는 연극 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소년 보호관찰 연극 치료 프로그램 모습



세계적 탄소 중립 강화로 인해 수소가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어프로티움(주)은 60년 전통의 수소 전문 기업으로 탄소 사회에서 수소 사회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어프로티움은 apply(적용하다)와 protium(수소)의 합성어로, '다가올 수소 사회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객과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을 실천하는 중이다.

### The Best 착한일터로 실천하는 지역 사랑

기업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상호작용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 마련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윤 추구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어프로티움은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전제가 된다는 신념 아래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울산 사랑의열매 착한일터에 가입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착한일터는 직장인 모금 캠페인으로, 기부자가 약정한 후원금이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정기적 나눔 참여 방법이다. 착한일터로 정기 기부를 시작한 어프로티움의 임직원은 "어프로티움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어프로티움 관계자는 "자발적 나눔문화에 적극 동참해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착한일터는 지역의 이슈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지역 구성원의 요구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배분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가운 것은 착한일터 가입 후 사내 기부 문화가 정착되면서 정기 기부뿐 아니라, 연말에 진행하는 이웃 돕기 성금 모금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랑의열매에 이웃 돕기 성금 5,229만 원을 전달하며 사랑의온도답 온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 청소년의 상처(Scar)를 별(star)로 만드는 연극 치료 프로그램

어프로티움은 울산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의 연극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연극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자신의 긍정적 측면과 가치를 확인하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다. 연극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은 "말이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처음



에는 어색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동안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해 오해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내 생각을 제대로 표현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연극 수업은 호기심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며,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나 거친 표현 등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업 중에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도 갖는다. 어프로티움은 연극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일깨우고 싶은 것은 ‘자존감’이다. 일찌감치 자포자기 상태로 내몰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나도 소중한 사람’이란 인식을 심어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실제로 연극 치료 프로그램은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술 심성 치료 중 하나인 연극은 성공적 무대를 위한 피나는 연습, 공연 후 관객과 함께하는 커튼콜의 희열 등으로 자존감을 기르는 데 더 없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작은 손길로 큰 변화를 이끄는 환경 정화

“2040년까지 온실가스 Net Zero”를 목표로 하는 어프로티움은 수소에너지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요소를 무엇보다 중시한다. 지구촌 이슈인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 지킴이 역할도 자처한다. 대표 활동으로는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환경 미화 작업을 꼽을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을 맞아 어프로티움 임직원과 울산 남구 선암동 온동네봉사단이 상개저수지 주변에서 쓰레기 줍기, 나뭇가지 전지 및 수거 등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상개저수지 일원을 기업과 주민이 함께 돌아보며 더러운 곳을 청소하고, 낮과 톱으로 저수지 주위 나무 전지 작업을 실시하는 등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점검하며 청결하고 안전한 선암동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이다. 선암동 배두연 온동네봉사단장은 “온동네봉사단 단원과 어프로티움 직원들의 노력으로 선암동이 조금이나마 깨끗하고 청결해질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며, 우리 동네 대한 긍지를 가진다”고 말했다. 어프로티움 관계자는 “선암동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상개저수지 환경 정화 활동은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이어간다면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런 활동이 멀리 퍼져나갈수록 세상은 자연과 더 가까워진다. 깨끗한 환경, 따뜻한 사회,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어프로티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 1 어프로티움의 튜브 트레일러. 어프로티움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배관망과 튜브 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있다.
- 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은 물론,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

사랑의열매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겨울방학 동안 부자·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펀딩을 진행한다.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 부자·조손 가정 겨울방학 도시락 지원 사업

### “끼니 걱정 없는 즐거운 겨울방학이 되길”

모든 아이가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부자 가정 및 조손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동안 먹거리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을 잊기 위해 인스턴트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죠. 그로 인해 소아비만, 영양 부족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겨울방학을 걱정하고 있을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밥 도시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몸 건강은 물론, 따스한 돌봄으로 마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도시락 지원에 함께해주세요. ♡

든든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모금 기간  
5월 19일~11월 30일

목표 금액  
320만 원

모금 사용 부자·조손 가정 도시락 지원(총 8주/주 2회/1일 2식)



O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 캠페인 → 크라우드펀딩



#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흔히 아플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자신의 아픔을 참고 견디는 이들이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견하는 건 쉽지 않다. 사랑의열매는 숨어 있는 이들을 발굴해 그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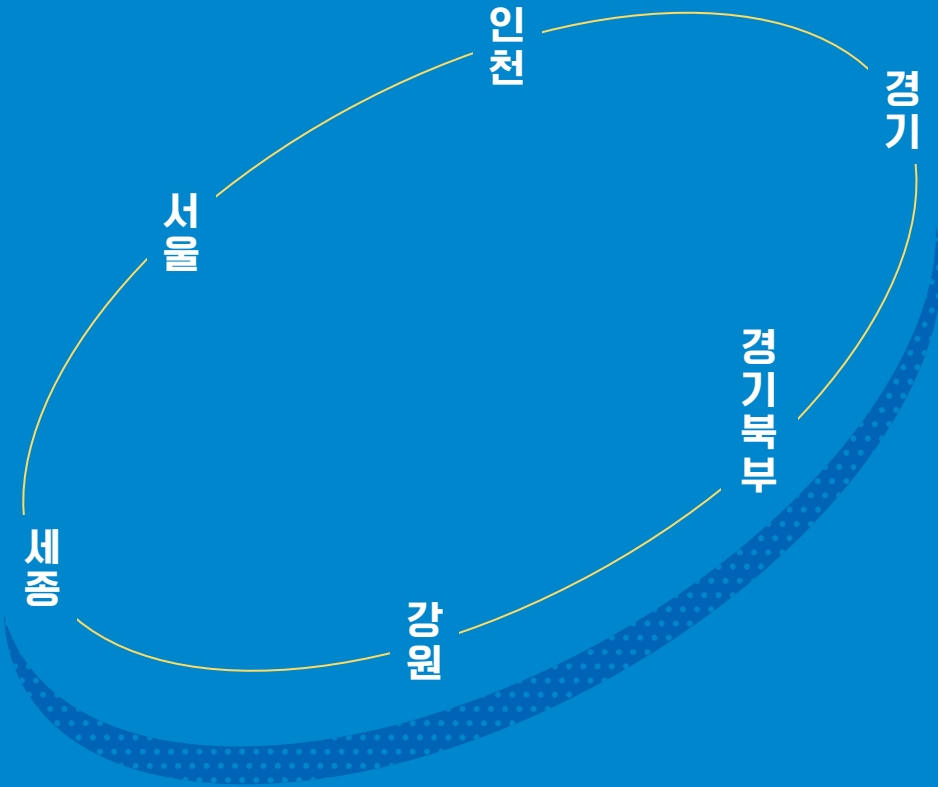


### 다른 부분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7월







## 2023년 제1호 유튜버 아너 소사이어티, 슈퍼개미 이세무사TV 이정윤 세무사 “나눔으로 구독자님께 고마움 전합니다”

자신의 나눔에 그치지 않고 나눔 이벤트까지 진행하며 새로운 기부 문화를 제안하는 사람,  
바로 슈퍼개미 이세무사TV 이정윤 세무사다. 글강은진 사진 서울 사랑의열매



슈퍼개미 이세무사TV 이정윤 세무사(오른쪽)와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이 참석한 아너 가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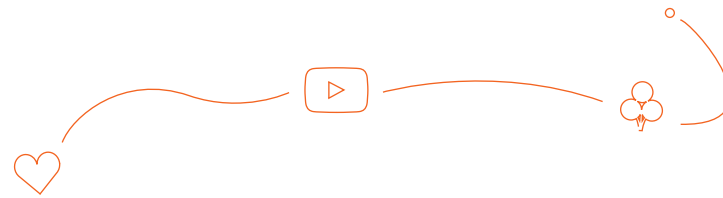
### 20만 구독자 기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서울 사랑의열매 2023년 제1호 유튜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슈퍼개미 이세무사TV 이정윤 세무사다. 지난 5월, 이정윤 세무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20만 명 달성을 기념해 1억 원을 기부하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슈퍼개미 이세무사TV는 2017년부터 건강하고 올바른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채널이다. 또 이정윤 세무사는 유튜브 방송과 함께 <삼박자 투자법>, <성장주에 투자하라> 등 각종 투자 관련 서적을 집필했으며, 강연과 방송 등 왕성한 활동을 통해 투자 영역에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만 구독자 달성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답은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이정윤 세무사는 유튜브 수익금을 통한 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뿐 아니라 구독자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고 한다.



슈퍼개미 이세무사TV 이정윤 세무사와 구독자가 함께하는 나눔리더 단체 가입 및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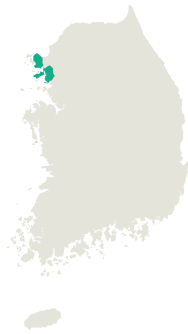
### 구독자와 함께하는 나눔이벤트로 선한 영향력 펼쳐

이정윤 세무사는 자신의 기부에 그치지 않고 20만 구독자와 함께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며 주위를 놀라게 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슈퍼개미 이세무사TV 채널에서 ‘20만 구독자 달성 기념, 서울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이벤트 모금’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418명의 구독자가 참여했으며, 모인 성금은 88,888,888원에 달했다. 이벤트 모금에 참여한 구독자 가운데 62명은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해 훈훈함을 더했다. 지난 6월 16일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벤트 모금에 참여한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62명이 나눔리더 단체 가입식을 하고 나눔리더스클럽 가입까지 마쳤다. 더없이 아름다운 나눔 릴레이가 아닐 수 없다. 이정윤 세무사는 “앞으로도 주식과 투자에 관한 질 좋은 정보뿐 아니라 나눔의 기쁨도 전하는 유튜버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은 “이정윤 아너의 소중한 나눔이 우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이 이정윤 세무사에게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나눔리더스클럽 인증패 전달하고 있다.





## 각계각층 나눔리더·착한가게 단체 가입 줄 잇는 인천 ‘착!착!착! 이웃과 함께 일상회복으로’

이웃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인천의 나눔 열기가 심상치 않다.  
나눔리더는 물론 착한가게까지 줄을 잇는 기부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글강은진 사진 인천사랑의열매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홍종진 명예회장, 인천 사랑의열매 박용훈 사무처장,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김현기 회장 등이 참석한 나눔리더 단체 가입식



최근 나눔리더에 가입한 신한은행 에스버드 여자 농구단 김지영 선수

### 2023 나눔리더 캠페인 시즌 2 시작!

인천의 나눔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후끈 달아올랐다.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이 출범한 가운데 ‘2023 나눔리더 캠페인 시즌 2’를 동시에 시작한 인천 사랑의열매는 각계각층의 인천 시민이 이웃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해왔다. 먼저,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10명이 단체 가입하며 나눔리더 캠페인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또 신한은행 에스버드 여자 농구단 가드 김지영 선수가 “나눔의 선한 영향력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윤활제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리더에 가입해 힘을 보탤다. 인천 사랑의열매는 2017년 6월 나눔리더 최초 가입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34명 전원이 단체 가입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시작한 나눔리더 캠페인 시즌 1에서도 인천 시의원과 구청장 및 군수를 비롯해 유명 선수와 언론사 대표 등 유명 인사들까지 대거 동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은 인천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과 청소년 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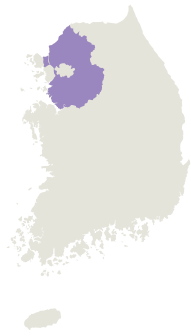
### 착한가게 2300호 탄생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인천 대표 브랜드 모금 착한가게도 2300호가 탄생하며 많은 이웃이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남동구 구월1동에서 2300호를 포함해 13개 착한가게가 단체 가입하며 나눔의 열기를 이어갔다. 특히, 구월1동은 이번 가입을 포함해 착한가게 누적 수가 총 42개소에 달해 남동구 대표 나눔 지역으로 손꼽힌다. 인천 사랑의열매 착한가게는 2007년 2월 최초 가입을 시작으로 16년간 인천의 수많은 자영업 대표들이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 이상의 성금을 기부하며 동참해 지역사회 이웃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2022년 9월에는 중구 개항동에서 2000호 착한가게가 탄생하며 13개소 단체 가입으로 나눔의 열기를 유지하기도 했다.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과 2023 나눔리더 캠페인 시즌 2에서도 인천만의 따뜻한 기록들을 기다려본다. ♡



인천시 남동구 대표 나눔 지역으로 손꼽히는 구월1동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





## 착한소비 업무 협약 및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나눔 펼치는 (주)이오니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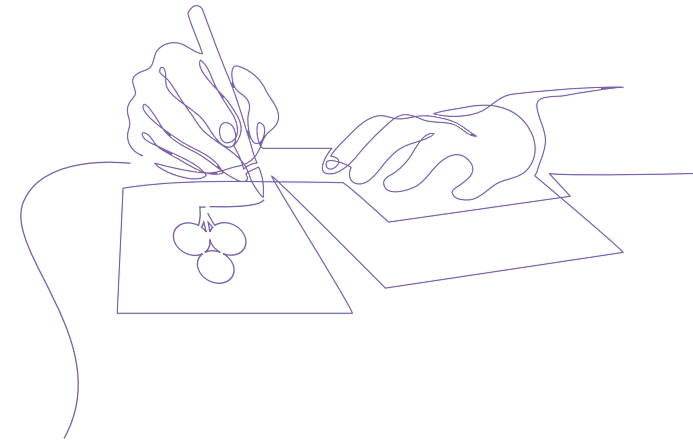
나눔을 통해 꾸준히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온 (주)이오니스,  
세상을 보다 맑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만나보자. 글강은진 사진 경기사랑의열매



경기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한 (주)이오니스 나눔명문기업 가입 및 착한소비 업무 협약식

### 착한소비로 기부 동참

'세상의 공기를 맑고 투명하게'라는 가치 아래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주)이오니스가 보다 큰 나눔을 위한 힘찬 도약을 약속했다. 착한소비 업무 협약과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동시에 진행한 것. 지난 5월 30일,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에서는 (주)이오니스 장석운 대표이사와 조등길 공장장, 경기 사랑의열매 김효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주)이오니스 나눔명문기업 가입 및 착한소비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착한소비란 기업은 제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함과 동시에 기부에 동참하게 되는 사랑의열매 공익 연계 마케팅(CRM) 브랜드 사업이다. (주)이오니스는 6월부터 출시한 자동소화패치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 약속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 롯데제과 빼빼로 등 과자류, 경동제약 그날엔 정, 키스미 마스크라 등 다양한 기업이 착한소비에 동참하고 있다.



### 348호 나눔명문기업으로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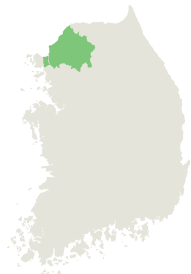
(주)이오니스는 전국 348호(경기 33호) 나눔명문기업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나눔명문기업은 일시 또는 3년 약정으로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기업 고객 기부 프로그램으로, 누적금액에 따라 그린(1억 원 이상), 실버(3억 원 이상), 골드(5억 원 이상) 회원이 될 수 있다. (주)이오니스는 올해 상반기 플러그형 공기청정기를 관내 어르신 세대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누적 기부금만 10억 원에 달한다. (주)이오니스 장석운 대표이사는 "자동소화패치 판매 수익금을 기부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이오니스의 나눔명문기업 가입과 착한소비 협약으로 조성한 기부금은 화재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주)이오니스는 각종 휴대용 공기청정기와 LED 조명 공기청정기 등으로 주목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공기청정기 전문 기업이다. 🍀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주)이오니스의 착한소비 제품 자동소화패치

“맑고 투명한 세상을 위해 (주)이오니스는 나눔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장석운 대표이사





## 남양주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청에 기부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이들을 오래 기억하고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조성했다. 명예의 전당은 쉽고 친근한 기부 문화를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글 이선희 사진 경기북부사랑의열매



남양주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 행사 중 세리머니 모습

### 감사와 존경을 담아 소중히 새긴 뜻

지난 6월 2일 남양주시청에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경기 사랑의열매 이순선 회장을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시복지재단 이종림 이사장,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 기부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및 기부자 현황 보고, 명예의 전당 안내, 축하 공연, 제막 퍼포먼스, 기부 시연,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막식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나눔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며 “기부금은 이웃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곳에 소중히 잘 사용해 남양주시를 최고의 복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시민에게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알리며 지역사회 내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 사랑의열매 이순선 회장(왼쪽)과 주광덕 남양주시장(오른쪽), 기부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진행했다.

### 남양주시의 따뜻한 나눔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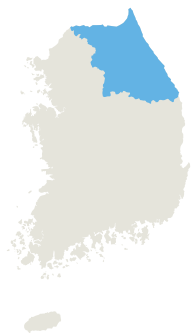
가로 11m, 세로 3m 규모의 디지털 월로 구성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기부자들의 현액판과 사진, 기부 철학, 기부 내역, 현장 기부, 기부자 검색, 포토 존 등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또한 일상 속 기부 문화를 정착·확산하고자 기부 키오스크와 테크형 단말기를 설치했다.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용카드, 디지털 페이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와 남양주시,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앞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와 연계해 명예의 전당을 기부 체험 및 나눔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기부자들의 현액판과 사진, 기부 철학 등을 담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 디지털 월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것은 예술입니다.  
그중에서도 ‘나눔’은 가장 감동적인 예술입니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을 계기로 남양주시 구석구석 따뜻한 기부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 사랑의열매 이순선 회장





## 에너지 취약 계층 여름나기 지원 사업 우리강원 여름나기도 착!착!착!

강원 사랑의열매는 '우리강원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시작과 함께  
2023 여름 나기 취약 계층 냉방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일상 회복과 시원한 여름 나기를 동시에 준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이야기를 전한다.

글 이선희 사진 강원 사랑의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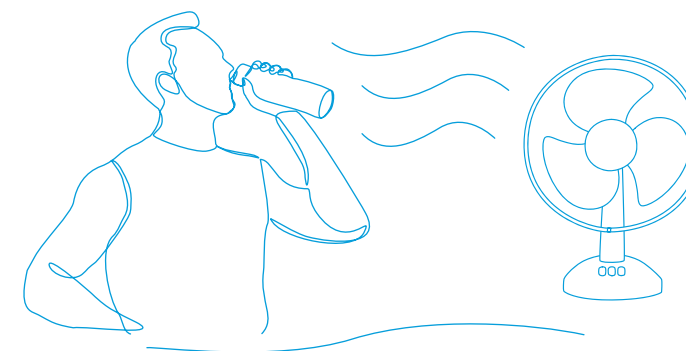
우리강원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과 2023 여름 나기 취약 계층 냉방비 지원금 전달식에 함께한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왼쪽에서 네 번째)

### 에너지 취약 계층 냉방비 지원

지난 6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강원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살려 여름 나기 냉방비 지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으며, 강원 사랑의열매는 강원특별자치도청에 3억 원을 전달했다. 해당 지원금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취약 계층 3,000가구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전달한다.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 냉방비를 지원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 특히 어느 때보다 덥고 습한 여름이 예고된 터라 강원 사랑의열매는 신속하게 냉방비 지원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폭염 취약 계층에 전달할 여름 나기 물품 꾸러미를 만드는 모습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여름 나기 지원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웃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강원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

### 여름 나기 물품 꾸러미로 더 시원하게

강원 사랑의열매는 지난 6월 19일 강원도사회복지회관에서 2023년 시원한 여름 나기 지원 사업 배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 김동후 사무처장,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 오미경 회장, 정재희 사무국장 외 자원봉사자,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홍기종 회장, 김명식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강원 사랑의열매가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여름 나기 물품 꾸러미를 제작해 저소득 폭염 취약 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번 여름 나기 물품 꾸러미는 폭염 취약 계층이 혹서기를 건강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 해충 퇴치·비상약품, 계절 음식을 포함했다. 참석자들이 만든 물품 꾸러미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두 전달했다. ♡





## ‘착한 소상공인 힘내라! 캠페인’ 전개 “변함없는 나눔 실천, 감사합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 물가 상승 등 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소상공인’들이 있다.

글이선희 사진세종사랑의열매



세종 사랑의열매는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과 함께 ‘착한 소상공인 힘내라!’ 캠페인을 전개했다.



“코로나19로 너무 힘들 때 기부를 중단할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더 힘들 것 같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기부를 했을 뿐인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직접 인사까지 해주시니 제가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복사골 하선옥 대표



“일할 때 꼭 필요한 거라 앞치마가 여러 개인데, 이제는 착한가게 앞치마만 입겠습니다. 더 많은 기부금을 내는 그날까지 이 앞치마를 입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카티지피자 박영숙 대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착한가게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들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성한우 이지한 대표



“명품 김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듯, 착한가게를 통해 명품 나눔을 실천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밥명품 김태자 대표

### 찾아가는 기부자 감사 인사

지난 5월 16일 세종 사랑의열매는 2023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과 함께하는 착한 소상공인 힘내라! 캠페인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기부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한 중소 자영업 기부자를 위한 예우 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 세종시 내 착한가게 기부자 중 3년 동안 기부를 이어온 곳은 총 67개소로,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이 직접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특별히 제작한 착한가게 앞치마·탁상시계·마스크를 예우 물품으로 전달했으며, 착한가게 현판 정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정연희 단장은 “기부자를 직접 만나고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사랑의열매 기부자와 세종시 어려운 이웃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3127호(부산 315호)



**양옥자 스카이블루에셋 총괄이사**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나눔은 물레방아입니다.”

전국 3140호(울산 119호)



**김찬수 드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우리 주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분에게 나눔 활동을 통한 소중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국 3147호(울산 120호)



**김연숙(주)진우금속 대표이사**

“34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받은 사랑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작은 선행이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확산되길 바랍니다.”

전국 3153호(광주 158호)



**이근신 엔에이치네트웍스(주) 대표이사**

“미래와 소통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전국 3154호(광주 159호)



**최윤수(주)동양ECO 대표이사**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고 앞으로도 이웃을 위해 배려하고 나누는 노력을 더해하겠습니다.”

전국 3159호(부산 319호)



**김희경 부산시거점형양성평등센터 센터장**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미래를 지키고, 현재를 변화시키는 데 한 걸음 보태겠습니다.”

전국 3160호(대전 108호)



**현상권 옥계철물건설사 대표**

“나눔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국 3161호(대전 109호)



**박희우**

“저의 작은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3162호(경기 313호)



**황아름 톤즈의원 인천부평점 대표원장**

“작은 사랑으로 시작해 큰 사랑 나눔을 약속합니다.”

전국 3163호(경기 314호)



**이성용 톤즈의원 동탄점 대표원장**

“저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또 다른 나눔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전국 3164호(경기 315호)



**이상철**

“사별한 아내와 살아생전 기부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쁩니다.”

전국 3166호(인천 171호)



**한상담(주)위드퍼 대표이사**

“올해 회갑을 맞이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누면 나눔수록 더 채워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전국 3167호(전남 143호)



**김주원 호주면세점 대표**

“작고한 부친을 생각하며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고향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며, 앞으로도 나누는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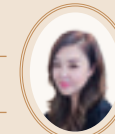
전국 3169호(중앙 374호)



**박재민 정화예술대학교 교수·에스팀엔터테인먼트 배우**

“매일 하는 운동처럼 꾸준히, 일상처럼, 가끔 미루더라도 언젠가 다시, 그러한 기부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전국 3172호(부산 320호)



**곽희정 스카이블루에셋 연산사업본부 본부장**

“나눔이라는 두 글자로 소통하는 행복한 또 다른 삶에 도전합니다. 나눔이 긍정적 에너지가 되어 상생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전국 3173호(부산 321호)



**최정규 우정약품 대표이사**

“현재를 당당하게 살며 후회 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존재가 있었다고,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전국 3174호(광주 160호)



**박유환 광주광역시의회 회장·첨단박유환내과 원장**

“건강한 시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동참하겠습니다.”

전국 3175호(대구 217호)



**박준철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행정학 강사**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 당연히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 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충남 강성모

전남 이혜은



중앙회

배우 박재민,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홍보



사랑의열매가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47일간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을 실시한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나눔의 아이콘 배우 박재민이 캠페인 성공을 기원하며 광고 모델과 ARS 목소리 재능 기부자로 참여했다. 일상회복 착!착!착!은 사랑의열매 연중 나눔캠페인으로, 성금은 기후 위기 및 사회 재난 취약 계층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과 엔데믹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박재민은 광고를 통해 일상에서 쉽고 꾸준히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인 착한가정·착한가게·착한일터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2017년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배우 1호로 가입한 박재민은 2023년 6월 아너소사이터티 회원이 된 나눔 스타다. 2013년부터 매해 겨울 연탄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현열 홍보대사,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나눔을 펼치고 있다.

사랑의열매가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47일간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을 실시한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나눔의 아이콘 배우 박재민이 캠페인 성공을 기원하며 광고 모델과 ARS 목소리 재능 기부자로 참여했다. 일상회복 착!착!착!은 사랑의열매 연중 나눔캠페인으로, 성금은 기후 위기 및 사회 재난 취약 계층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과 엔데믹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박재민은 광고를 통해 일상에서 쉽고 꾸준히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인 착한가정·착한가게·착한일터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2017년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배우 1호로 가입한 박재민은 2023년 6월 아너소사이터티 회원이 된 나눔 스타다. 2013년부터 매해 겨울 연탄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현열 홍보대사,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나눔을 펼치고 있다.

가수 임영웅, 생일 맞아 영웅시대 이름으로 2억 원 기탁

가수 임영웅이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사랑의열매에 2억 원을 기탁했다. 6월 16일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전국의 팬클럽이 기부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 팬들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 임영웅의 성금 1억 원에 소속사 물고기뮤직이 1억 원을 더해 총 2억 원을 전달했다. 임영웅은 2021년부터 3년째 생일마다 영웅시대 이름으로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2년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으며, 2022년 12월에도 이웃 돕기 성금 2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임영웅과 소속사 물고기뮤직이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누적 성금은 총 10억 원에 달한다. 영웅시대의 기부 활약도 이에 못지않다. 2021년 6월 3,700여 만 원을 기부하고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한 영웅시대는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성숙한 팬클럽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물고기뮤직

서울

영웅시대 서부은평방, 생일 기념 나눔 실천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서부은평방(방장 임공주)이 6월 16일 임영웅의 생일을 기념해 616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리더스클럽 서울 35호로 가입했다. 성금은 은평구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안전과 일상 회복 및 돌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임공주 방장은 “임영웅과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마주협회, 15년째 동물명의 기부금 전달



창립 30주년을 맞은 서울마주협회(회장 조용학)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서울마주협회는 15년째 경주마 이름으로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조용학 회장은 “우리의 성금이 힘차게 달리는 경주마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활기찬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산

복지 현안 지원 사업 지원금 3억 4,600여만 원 전달



부산 사랑의열매가 복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복지 현안 지원 사업에 3억 4,600여만 원을 배분했다. 지난 3월 사회복지 기관의 신청을 받아 15개소를 선정했으며, 고독사 예방과 성인 중증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 및 노후 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희망 2023 이웃 돕기 유공자 포상식 개최



부산 사랑의열매가 지난 6월 14일 희망 2023 이웃 돕기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참여해 뜻깊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한 단체와 개인을 포상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부산광역시장 표창(개인 10명, 단체 7곳)과 부산 사랑의열매 회장 표창(개인 13명, 단체 18곳, 우수구·군 6곳)을 했다.



대구

박수민·박진성·박시은 삼남매,  
나눔리더동시가입



박수민, 박진성, 박시은 삼남매가 나눔리더에 동시 가입했다. 삼남매는 대구 부부 아너인故 박찬수·김기호 회원의 손주들이다. 이번 나눔리더 가입은 할머니 김기호 씨가 가정의 달을 맞아 손주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고자 용돈 대신 마련한 선물이다. 박수민 양은 “할머니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구 아너 회원들,  
장애인 시설 봉사 활동 진행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지난 6월 14일 중증장애인 요양 시설인 애망요양원을 찾아 봉사 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산책하고, 즉석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코로나19로 외부와 단절된 시설 입소 장애인들에게 일상을 선물했다. 회원들에게는 복지 현장의 욕구를 확인하고, 공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광주

다스코(주),  
나눔명문기업 광주 5호 가입



다스코(주)(회장 한상원)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억 4,400여만 원의 성금을 기부해 광주 5호 나눔명문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상원 회장은 “나눔명문기업 인증패를 받게 돼 기쁘다”며 “다스코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골드클래스(주),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에 광주 첫 번째 기부 참여



광주 사랑의열매 박철홍 회장이 우리광주,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에 1,000만 원을 기탁하며 첫 번째 기부자로 나섰다. 또한 박철홍 회장이 운영하는 골드클래스(주)가 나눔명문기업 실버 회원으로 가입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박철홍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이웃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광주 시민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2023년 유공자 포상식,  
기부자에게 감사상패 수여



인천 사랑의열매가 지난 6월 14일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3 이웃 돕기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인천광역시장상 24명, 인천 사랑의열매 회장상 13명 등 총 37명의 개인 및 기업, 단체에 영예로운 상을 수여했다.

미추홀구 용현3동,  
착한 동-착한이웃들 선포



인천 사랑의열매가 용현3동을 ‘착한 동-착한이웃들’로 선포했다. 복지 취약 계층이 많은 지역임에도 주민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갖고 지역복지 행정 체계 강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이끌어가는 것이 ‘착한 동’의 목적이다. 인천 사랑의열매는 취약 계층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 착!착! 나눔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착한 동을 선포했다.

대전

(주)터전, 착한일터 가입으로  
이웃사랑 실천



(주)터전(대표 박영순) 임직원이 대전 사랑의열매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임직원 20여 명은 정기 기부를 약속하며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으며,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박영순 대표는 “직원들의 마음을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열매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나눔을 확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상권·박희우 부부,  
대전 부부아너 가입



옥계철물건재상사 현상권 대표와 그의 아내 박희우 씨가 대전 108호·109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하며 부부아너로 이름을 올렸다. 현상권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우 씨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울산

울산 학연 동기회,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울산 학연 동기회(추진위원장 박재술)가 이웃사랑 성금 1,113만 원을 기탁하며 울산 나눔리더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제1회 울산 학연 동기회 모임의 시작을 기념하며, 울산에서 1967·1970·1973년도에 각각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1,113명의 회원이 1만 원씩 기부해 성금을 마련했다.

W아너 전국 지역리더들, 울산 경로식당 봉사활동 실시



W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지난 5월 3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도산노인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 활동에는 W아너 총리더인 BT& 송주은 대표와 울산 리더인 손당 손웅연 대표를 비롯해 전국 9명의 지역 리더가 참여했다. 봉사 활동 외에도 복지관 이용 어르신 280분을 위한 특식 지원금 200만 원도 전달했다.

경기북부

5공병여단 제131공병대대, 착한일터 가입



연천군 5공병여단 131공병대대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착한일터에 가입하며 군부대 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번 가입으로 131공병대대는 연천군 7호이자 연천군 군부대 착한일터 2호로 이름을 올렸다. 이민구 중령은 “대대 간부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며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3,000만 원 상당 백미기탁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지부장 오영석)가 고양시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해 3,000만 원 상당의 백미 1,004포를 기탁했다. 백미는 고양시 44개 동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했다. 오영석 지부장은 “지역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

용인 지역기업 33곳에 ESG나눔기업 인증패 전달



지난 6월 13일 경기 사랑의열매가 2022년 한 해 동안 지역 사회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기부한 용인 지역 33개 기업 및 법인에 ‘용인 ESG나눔기업’ 인증패를 전달했다. 이날 경기 사랑의열매는 용인특례시·용인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기업들의 ESG 나눔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발대식 진행, 석수2동 착한동네 1호 가입



경기 사랑의열매가 지난 6월 15일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경기,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캠페인 시작을 알리며 석수2동이 착한동네 1호로 가입했으며, 희망동전 찾기 저금통 퍼포먼스와 거리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김정민 석수2동장은 “많은 지역민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강원

시군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 진행



강원 사랑의열매가 시군 주무 부서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소개와 연중 진행할 배분 사업 안내를 함께 실시했다.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모금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따뜻한 강원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원주 센트럴병원,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전달



원주 센트럴병원(대표원장 강철원)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강원도 지역의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쓸 예정이다. 센트럴병원 하영준 원장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을 위해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성금을 기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환원으로 지역민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곁쌍둥이가족 돕기 소망기금 전달식



충북 사랑의열매가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청주 곁쌍둥이가족 돕기' 소망기금 특별 모금 캠페인으로 모금한 4,676만 5,820원을 곁쌍둥이가족에게 전달했다. 성금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비 및 곁쌍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양육비 등에 사용한다. 성금을 전달받은 가족은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영업센터, 다문화가정 힐링나들이 지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영업센터(센터장 김승희)가 지난 5월 31일 착한일터 성금 276만 1,000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평소 여행을 가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및 취약 가정의 힐링 나들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김승희 센터장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다문화 및 취약가정에 작으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

(주)모아종합건설, 완주군에 3억 원 쾌척



(주)모아종합건설(대표 박치영)이 완주군 취약 계층을 위한 성금 3억 원을 쾌척하며, 일상회복 책책책! 나눔캠페인 완주군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치영 대표는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옥도면 착한가게 29개소 단체 가입, 전북 착한가게 4,400호 돌파



지난 5월 24일 옥도면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전북 군산시 옥도면(면장 한상봉) 29개 점포의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번 단체 가입으로 전북 사랑의열매 착한가게가 4,400호를 돌파했다. 한상봉 옥도면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착한가게 대표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금산군산림조합, 나눔명문기업 가입하며 나눔 실천



금산군산림조합이 지난 3년간 총 2억 5,000만 원을 기부해 충남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현판 전달식에는 박범인 금산군수, 금산군산림조합 광병천 조합장, 충남 사랑의열매 성우중 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병천 조합장은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나가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중부발전(주), 일상회복 책책책! 나눔캠페인 충남 1호 기부 참여



한국중부발전(주)가 연중 모금 캠페인 일상회복 책책책! 나눔캠페인의 충남 1호 기부자로 참여했다. 한국중부발전(주)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기탁했으며, 성금은 충청남도 내 사회복지 생활 시설 400개소의 냉방기 실내기·실외기 점검 및 보강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아너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 제막식



신안군이 전남 시군 최초로 아너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제막식을 거행했다. 신안군은 아너 회원의 기부 정신을 지역사회로 널리 확대하고, 나눔을 선도할 신규 아너 회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신안군 5호 아너로 가입한 호주면세점 김주원 대표의 가입식도 함께 진행했다.

전남개발공사, 순이익 10% 기부로 상생나눔 실천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가 전남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33억 원을 기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나눔 실천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순이익의 10%를 도민 지원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2023년에는 기존 인재육성기금 20억 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 원 외에 복지기동대 지원금 3억 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The 행복한 GBDC 하우스 1호점 준공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가 지난 5월 30일 'The 행복한 GBDC 하우스 1호점 준공식'을 개최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1년부터 사회 공헌 사업 브랜드 'GBDC 사다리'를 선포하고, 하우리봉사단을 발족해 5개 분야 맞춤형 사회 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The 행복한 GBDC 하우스는 경북 도내 노후 주택 개보수를 위한 사업이다.

대한산란계협회 대구경북지회,  
사랑의 계란 5,000판 기탁



대한산란계협회 대구경북지회(회장 손후진)가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을 위해 3,000만 원 상당의 계란 5,000판을 기탁했다. 계란은 7개 시군(경주, 김천, 영주, 군위, 의성, 성주, 칠곡)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손후진 회장은 "산란계 농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계란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제주

(주)네오플,  
제주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



게임 개발 전문 업체 (주)네오플(대표 윤명진)이 제주도 내 결식우려 아동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800만 원을 기탁했다. (주)네오플은 제주시와 제주 사랑의열매, 제주 이어도지역자활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6월까지 제주시가 선정한 결식우려 아동 100명에게 매일 하루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

김리호군,  
첫돌 기념으로 나눔리더 가입



지난 5월 27일 첫돌을 맞이한 김리호 군이 제주 나눔리더 134호로 가입했다. 김리호 군의 부모인 김영우·박지혜 부부는 자녀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며 제주 사랑의열매에 성금 527만 원을 기탁했다. 부부는 2020년 3월 30일 첫째 자녀인 김태리 양의 첫돌에도 성금 33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경남

경상남도소방본부,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경남 1호



경상남도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착한일터 성금을 기부하며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경남 1호 기부자로 참여했다. 경상남도소방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착한일터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2025년 6월까지 착한일터 협약을 연장하고, '안전+나눔지킴이 사업'으로 취약 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복지사업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AI축구교실 창단식 개최



한국항공우주산업(주)(대표이사 강구영, 약칭 KAI)가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로 구성된 KAI축구교실을 창단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1,500만 원을 후원해 축구 수업과 축구공, 축구화, 유니폼 등을 지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박상욱 본부장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동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

(사)대한어머니회 세종시지회,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세종 1호



(사)대한어머니회 세종시지회(회장 박희숙)가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에 세종시 첫 번째로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으로 조성된 성금은 주거 환경의 위생 지원 등 하절기 취약 계층을 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박희숙 회장은 "어머니회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마련한 성금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바른기업,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나눔 확산



소방시설 및 전기공사 전문업체 (주)바른기업(대표 이윤희)이 나눔명문기업 세종 11호로 가입했다. 세종 35호 나눔리더인 이윤희 대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이사 및 세종지회 설립위원장으로 세종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 대표는 "나눔명문기업으로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5화

# 이상한 이상해씨

퇴근하다 문득 든 생각

동생 이상한

누나 이상해

난 없는데, 잘하는 거.

어쩐지 눈물아...

왕재수 고 부장도 식물은 그렇게 아끼고 잘 기르더라.

이 대리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기타 치다가 최근에는 앨범도 냈다는데.

동생 상현이도 소소한 집학, 잡설을 잘 알아서도 가끔 집에서 집학 너튜브도 찍더라.

덜컹 덜컹

나는 잘하는 게 뭐지?

울먹

아니야...이건 빔이 눈부셔서... 그래...

덜컹 덜컹

우어어

울먹

뭐야?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동생아, 니가 보기엔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누나가? 잘하는 거 많지.

관아? 관아?

숨도 잘 쉬고 밥도 잘 먹어, 잠도 잘 자, 눈치도 없어.

죽을래?

딩동!

치킨 왔어요!

오 왔다! 치킨!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니 치킨이대!

오 예!

누나의 장점은 바로 이겁데.

와구와구!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멘탈이 회복되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 저 경이로운 회복 탄력성!

멘탈이 약한 나로서는 부럽지만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

아~ 여기 치킨 존맛이다! 너도 빨리 먹어!



사랑의열매와 소중한 진심을 전하세요

중앙회	02-6262-3000	서울지회	02-3144-0101
부산지회	051-790-1400	대구지회	053-667-0530
인천지회	032-456-3333	광주지회	062-222-3566
대전지회	042-347-5171	울산지회	052-270-9000
경기지회	031-220-7900	경기북부	031-906-4028
강원지회	033-244-1662	충북지회	043-238-9100
충남지회	041-635-0340	전북지회	063-282-0606
전남지회	061-902-6800	경북지회	054-650-2600
경남지회	055-270-6700	제주지회	064-755-9810
세종지회	044-863-5400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000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000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